



5공비리 신드롬과 양돈산업

“

육우도 쇠고기 수입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서서히 탈락해 갈 것이다.

급격히 늘어나면 서서히가 아닌 '84년 소파동 때처럼 일시에 탈락하는 농민이 많아져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



노 영 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우리나라 TV 역사상 가장 시청율이 높다는 5공비리 관련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88서울올림픽보다도 시청율이 훨씬 높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다. 2개월 전에 있었던 올림픽이 마치 2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청문회가 있는 날이면 대중음식점이나 술집들이 한가하다고 하니 대단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물(돼지고기도 포함해서) 아직도 가정소비보다는 대중 기관소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있는 날에는 소비가 위축될 정도라고 한다.

이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에 청문회도 영향을 미친다면 축산물축회에서도 청문회 일정과 신문하는 국회의원, 출석하는 증인 등이 참고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청문회처럼 일반 국민에 정치가 뜨겁게 접촉되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여론화 해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닥아올 때가 문제이다.

비커에 물을 담아 그 안에 개구리를 넣고 그 밑에서

알콜램프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결국 개구리는 익어 죽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번에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뜨거워서 뛰쳐 나가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물론 개구리가 비커에서 뛰쳐 나갈 때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

과거 면화농사나 소맥농사가 비커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사라져 갔으며 유채농민이 같은 길을 걸어 갔다. 축산분야도 낙농의 경우 우유값을 5년간 동결함으로써 서서히 탈락해 간다고 아우성이다. 육우도 쇠고기 수입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서서히 탈락해 갈 것이다. 금년에 14,500톤, 내년에 39,000톤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서서히가 아닌 84년 소파동 때처럼 일시에 탈락하는 농민이 많아져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온도에 적응하면서 어느 수준까지는 버티지만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듯이 서서히 수입개방을 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오히려 체질이 강해져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결국은 밀농사, 면화농사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 일정 온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판이 필요한 것이다.

테모를 막기 위해 최루탄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간다면 시위 군중들도 어느 선까지는 버티다 결국은 못버티는 선에 도달하게 된다. 환율도 서서히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져 680원선이 무너지니 중소기업체부터 서서히 쓰러져 간다고 한다. 계속 절상이 되어가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금년들어 배합사료 가격이 6% 정도 인상되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또 한번 5-6%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축산물 가격은 오르지 못하도록 쇠고기를 수입해서 판촉활동까지 벌리는데, 생산비가 한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사료값을 올리는 것이 양축가 입장에서 보면 비커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구조적으로 축산물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오르기

어렵고 과잉생산의 염려가 적은 쇠고기는 부족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이 동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생산비는 주종을 이루는 사료의 경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에 없는 부가세를 6%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제매입제도 등으로 혜택을 주다가 이제는 공제율을 서서히 올려서 양축가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국산옥수수 사용으로 양축가의 추가 부담이 15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서서히 양축가를 괴롭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사료용 대맥을 못쓰게 해서 배합사료의 원가가 높아지도록 하고, 대두박 수입을 묶어 놓아 원가와 품질에서 피해를 보도록 하고 자가배합사료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비가 올라가도록 하는 등 비커속에 양축가를 가두어 두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올리는 정책들을 헤아리자면 한이 없다.

낭비적인 각종 규제가 그렇고, 최근 오제스키병 등에 대한 방역대책 등이 양축가들로 하여금 생산비가 높아지도록 하는데, 그것도 서서히 높아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너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신문에 보도되는 저강도전투(低強度戰鬥)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축산업계에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두려울 뿐이다.

다행이 1월30일 국회 재무위에서 비록 축협사료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것은 어렵פות이나마 민주화의 혜택이 양축가에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TV로 청분회를 보면서 청분회 증후군에 걸려 있지만 말고 더 이상 비커속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온도계로 체크해서 과학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